

<성막의 개요>

1. 성막은 무엇인가?

-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
- 또 다른 이름: 회막(meeting tent,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 성소(거룩한 장막)
-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며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2. 성막의 규모는?

- 전체 면적: 100규빗(45미터) X 50규빗(22.5미터)
- 성소: 20규빗(9미터) X 10규빗(4.5미터)
- 지성소: 10규빗(4.5미터) x 10규빗(4.5미터)
- 이동식 건물이었기에 모든 기물들은 운반하기 좋게 제작되었고, 다른 신전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초라한 성전이었다.

3. 성막의 배치

-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12지파 배치
-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활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

4. 성막의 재료

- 금, 은, 놋(청동), 보석, 실, 가죽, 조각목

종 류	총 량
금 29달란트 730세겔	986 + 8 = 994kg (금 1kg = 약 8천만원, 800억)
은 100달란트, 1775세겔	3400 + 20 = 3420kg (은 1kg = 약 100만원, 34억)
놋 70달란트, 2400세겔	2380 + 27 = 2407kg

- 조달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바침 (출 35:21,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 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 백성들이 넘치도록 가져옴 (출 36:5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귀한 재료를 소유했나? 출애굽 때 애굽 사람들에게 받음 (출 3:21-22,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으로 금송아지 제작,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허탄한 곳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5. 재료의 쓰임새

-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 귀한 재료 사용 (지성소 속죄소: 순금, 성소 금기둥, 성막 정문 낫기둥, 성막 안 기구: 순금 or 금박, 성막 뜰 기구: 놋)
-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 거룩하다.

6. 성막은 이집트 군대 막사 형태와 유사

“야웨는 파라오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간 것과 유사하게 행동하셨다 ... 이스라엘의 성막은 주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칠 때까지 자신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이동용 전쟁 사령부로 인식되었다” (그레고리 빌, 『성전신학』, p.85.)

- 성막은 군사용 막사, 성막이 성전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전쟁이 끝나고 안식이 임했음을 상징한다.
-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음 (왕상5:3-4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7. 고대 근동 사람들의 믿음: 성전이 하늘과 땅 전체의 축소판

-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시 78:69)
- 성막 건축 = 천지 창조, 천지 창조 스토리와 성막 건축 스토리 유사

천지 창조	성막 건축
히브리어 ‘아사’(만들다, 짓다) 7회(창 1-3장)	히브리어 ‘아사’ 7회(출 25-31장)
‘이르시되’~‘좋았더라’ 각 7회(창 1장)	설게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회(출 25-31장) 건축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회(출 40장)
시간의 시작	유대력 1월 1일 성막 건축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출 40:2)

- 성막의 3중 구조: 지성소, 성소, 뜰, / 세상의 3중 구조: 하늘, 땅, 땅 아래 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출 20:4)
- 성막 덮개에 수 놓은 그룹은 천상을 상징
- 히브리어 “마오르”(광명체): 창세기 1장 천지창조 때 5번 언급, 나머지 10번은 성막의 등불을 가리킬 때 사용, 광명체 = 성막의 등불, 등잔대 7개 등불 = 고대인들이 가장 밝은 별로 생각했던 황도대의 7개 별(해,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상징
- 성전을 천지 만물의 축소판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의 통치자임을 표현하기 위함

8. 성막과 에덴 동산

-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였다.

공통점	에덴 동산	성소 및 성전
“아바드”와 “샤마르”	아담이 해야 할 일(창 2장): ‘아바드’ (경작하다)와 에덴동산을 ‘샤마르’(지 키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아바드’(예배하 다), 성소를 ‘샤마르’(지키다)
“미트할렉”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미트할렉)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창 3:8) : 에덴 동산에 임재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 니...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미트할렉)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레 26:11-12) : 성전에 임재
보 석 (호마노)	- ‘호마노’는 성경에 두 번 등장,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진주)과 호마노도 있으며” (창 2:12)	“호마노며 예봇과 흙패에 물릴 보석이니라”(출 25:7) 호마노: 에덴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보석
그룹들 (케루빔)	아담과 하와가 추방된 뒤에 못 들어오도록 그룹들이 지키게 하신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쫓아내시 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 3:24)	속죄소를 덮는 그룹들, 그룹을 수 놓은 덮개 지성소 앞 휘장에 그룹 무늬,
강	-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의 이미지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 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창 2:10)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겔 47:10)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맞 어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계 22:1)

9. 성막과 시내산

- 시내산의 3중 구조: 경계가 세워진 산 아래(출 19:12-13), 장로들이 올라갈 수 있던 산 중
턱(출 24:9-11), 모세만 올라갈 수 있는 산 정상(출 24:14-18)
- 성막의 3중 구조: 성막 뜰, 제사장이 출입할 수 있는 성막(성소),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
는 지성소

10. 제사의 순서

- 제사자가 흠 없는 짐승을 골라 성막으로 끌고 온다.(남녀 모두 성막에 올 수 있다.)
- 제사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도살, 짐승의 피를 제사장에게 전달(제사장의 안수와 도
살은 공적 제사에서만 시행)
- 제사장이 제단에 피를 뿌림
- 제사자는 가죽을 벗긴 뒤 몸통은 각을 뜨고 기름을 도려낸 후 내장을 씻음

- 제사장이 각을 뜯 고기와 내장과 기름덩이를 제단 위에 놓는다.
- 제사자는 짐승을 잡는 과정을 통해 죄의 대가가 이렇게 비참함을 상기,
- 예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 죄의 대가를 단번에 치르셨다.

11. 성막 봉사자

-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제사 드리는 일, 등잔대, 분향단, 떡상 관리, 백성 재판, 병 진단, 포로기 이후에는 율법을 가르침
- 레위인: 30-50세 까지, 성막 지키는 직무, 행진할 때 기물을 메고 운반하는 직무, 제사 돕는 일

I. 성막의 재료와 의미

1. 재료

① 금과 은과 놋 (출 25:3)

놋: 구리 + 아연 → 황동,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청동 (구리 + 주석)

② 염료

“청색 자색 홍색 실과”(출 25:4)

- 히브리어 원문에는 실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실을 작게 표기하였다. 원문을 보면 실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염료를 준비하라는 의미이다.
- 고대 시대에 염료는 매우 귀한 것이었다.
- 청색: 바다달팽이(뿔고둥)에서 추출하는 제일 값비싼 염료였다. 1만 2천마리 → 1.4g 추출
- 자색: 조개에서 추출
- 홍색: 연지 벌레에서 추출, 현재도 딸기 우유에 첨가되는 색소

③ 가는 베

- “가는 베 실과”(출 25:4)

- 가는 베: 세마포(모시)를 말한다. 굵은 삼베는 짜고 가는 모시는 비짜다. 아마 성막용 세마포는 광야에서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것 같다.
- 성막을 두르는 천으로 사용

④ 가죽

“염소 털과”(출 25:4),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출 25:5)

- 원문에는 ‘털’이라는 단어가 없다. ‘털’을 빼면 ‘염소’와 ‘숫양’, ‘해달’ 가죽을 준비하라는 것
- 해달은 돌고래로 추정된다.
- 성막 덮개로 사용

⑤ 나무

“조각목과”(출 25:5)

- 아카시아 나무, 싯딤 나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아카시아는 가짜 아카시아 나무)

- 광야에서 쓸만한 나무, 가볍고 견고하다.
- 조각목으로 성막 프레임 제작

⑥ 기름과 향료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출 25:6)

- 등유: 등잔에 넣는 기름, 올리브유
 - 관유: 올리브유 + 향료, 성전 기구들과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출 30:26-30).
-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시나몬) 이백오십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과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힌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출 30:23-25)
- 고대 사회에서 염료와 더불어 향료도 대단히 비쌌다. (예. 나드 향유)

⑦ 호마노와 보석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출 25:7)

- 호마노: 붉은 빛을 띠는 준보석
- 호마노와 보석: 에봇과 흉패에 장식용으로 사용

※ 성막의 재료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 물자가 부족한 광야에서 어떻게 구했을까?
- 출애굽 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얻었다(출 12:35-36).
- 구하기 힘든 재료를 힘들게 구해 오라고 한 게 아니다.
- 하나님이 만들라 명하신 성막도 사실 거창하지 않다. 이동형 텐트(18평 텐트)
- 그러나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은 것 아니다. 기쁜 마음으로 바쳐라.(출 25:2) 은혜 받으려면 일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받기만 기대하지 말고 희생해 보라.

II. 지성소

- 크기: 10규빗 x 10규빗, 약 20m²(6평)

1. 언약궤

- 사이즈: 가로 112cm, 세로 67cm, 높이 67cm
- 십계명이라는 증거를 보관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했고, 십계명이라는 법을 보관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했고,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보관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불렸다.
- 성막은 언약궤를 안치하는 공간, 언약궤가 성막의 핵심
- 뚜껑이 없는 나무궤,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금박을 입혔다.
- 발 4개가 달렸고, 거기에 금 고리를 달아서 메고 갈 수 있게 했다.
- “채를 궤의 고리에 꿰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출 25:15): 언제라도 이동할 준비, 하나님은 멈춰 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
- 금,은,보석이 많이 사용된 이유: 빛을 발하는 성질 때문, 하나님의 임재 상징
- 재료 사용의 특징: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에 가까울수록 금, 먼 곳은 청동, 덜 귀한 재료

- 영적 교훈: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임하신다(출 25:22).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하나님의 법) 위에 임재하신다. → 십계명대로 행하신다, 그 법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린다.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언약궤 가지고 전쟁 나갔다가 빼앗긴 역사(삼상 4:3), 언약궤를 승리의 부적으로 착각,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을 누리려는 꿈수)
-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사라짐, 언약궤 위에 임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어디에 임하시는가?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다(렘 31:31-34).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눅 22:20) 그래서 언약궤는 필요없다.

2. 속죄소

- 언약궤의 덮개 역할, 가로 112cm, 세로 67cm
- 언약궤는 금박, 속죄소는 순금으로 제작, 성막에서 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기구
- 언약궤보다 속죄소가 더 중요하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
- 한 덩어리의 금에서 속죄소와 2개의 그룹(천사) 형상을 만들게 하셨다. 속죄소와 그룹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 그룹(케루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모습과 다르다. 고대인들이 믿었던 천사는 사람과 동물이 섞여 있는 모습(예. 이집트의 스팅크스는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룹)
- 그룹의 임무: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경호하며 섬기는 존재들, 고대에 왕을 수행하는 종들은 왕의 의자 역할이나 발판 역할도 했다.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시 18:10)
-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출 25:20) → 날개를 펴서 고개를 숙이는 형태, 지상 성막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룹 위에 하나님이 앉으신다. 속죄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
-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움직이심.
- 왜 이름이 속죄소인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속죄소에 염소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레 16:15-16).
-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속할 장소가 필요했다. 그래서 속죄소에서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면 그 위에 강림하시고 말씀하셨다.
- 신약에서 속죄소는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제물이자 속죄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
- 십계명을 덮고 있는 속죄소: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간, 그런데 그 위에 속죄소가 있다는 것은 십계명이 고발하는 우리 죄를 속죄소가 덮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 발등상(Footstool)

- 좌석 앞에 발을 올려놓는 발판을 말한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시 132:7)
-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임재하는 곳에 보좌와 발등상은 한 세트로 비치했다.
- 성막에서 발등상은 어디인가? 그룹이 보좌라면 발등상은 속죄소이다.

Ⅲ. 성 소

- 기구 위치: 북) 진설상(떡상)과 진설병, 남) 등잔대, 서) 분향단
- 크기: 20규빗 x 10규빗, 약 40m²(12평)

1. 진설상(The Table of Showbread)

- 재료: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힘
- 크기: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7cm
- 특징: 이동을 위한 고리와 채가 달림, 부속비품으로 대접(빵 올려놓을 접시), 접시(우리 성경에는 숟가락이라 번역, 유향 담는 종지), 병(포도주 담는 병), 잔(포도주 제사장들이 마심)

1-1. 진설병(Showbread)

- 진설병 개수: 12개(12지파 상징)
- 진설병 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 덩이를 십분의 이 에바로 하여”(레 24:5), 0.1 에바 = 1인 하루 배급량, 떡 12개 = 24일치 배급량
- 진열 방법: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열”(레 24:6)
- 교체 시기: 매 안식일마다 새 빵으로 교체
- 처리 방법: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레 24:9) → 제사장들이 먹음(포도주와 함께)

1-2. 진설병의 의미

- 하나님께 바치는 빵이 아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에게 매일 먹을 것을 바침)
-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공급하는 분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 만나 담은 항아리가 먹을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상징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출 16:32))
- 진설병은 언약 사건을 기념하는 언약의 표징이다. (시내산 언약 체결 때 빵을 먹은 일)
- 이 진설병은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만찬을 나눈 것을 기념하는 의미
-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출 24:9-11)
- 진설병의 양이 왜 그렇게 많은가? 70명 이상이 참여한 시내산 언약 잔치를 기념하는 상이기 때문
- 진설상(떡상)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 안에서 함께 식사(교제)하는 분임을 보인다.
- 안식일에 진설병을 교체하는 것은 안식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임을 나타낸다.(주일에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가?)
- 하나님과의 교제는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라야 성막에 들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성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빵을 먹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성막의 떡을 먹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로 그분과 교제를 누린다.

2. 등잔대(Menorah)

- 남쪽에 위치, 마주 보고 있는 진설병이 잘 보이도록 불을 밝힌다.
- 재료: 순금, 순금 한 달란트(약 34Kg)의 덩어리 상태에서 조각내지 않고 만들어야 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 크기: 크기는 알 수 없음. 다만 유대인들은 120cm 높이로 만들었다고 한다.
- 만일 순금 34kg으로 등잔대를 만들면 높이가 60cm 정도밖에 안 된다. 아마 파이프처럼 속이 빈 등잔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큰 등잔대를 만들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
- 특징: 1개의 줄기와 6개의 가지를 가진 살구나무(아몬드나무) 형상으로 제작, 최고급 올리브유로 불을 밝힘

2-1. 등잔대 불빛의 의미

- 7개의 등불은 태양계 7행성 상징(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성막은 세계의 축소판
- 유대인들은 등잔대의 불빛을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시편 67편의 히브리어 구절들을 등잔대 모양으로 구성해서 암송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시 67:1) → 등불을 하나님의 얼굴빛과 같다고 이해
-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 33:20)
-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계 22:4).
- 또한 마지막 날에 등불도 필요없다(“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계 22:5)
-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남,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 만남)
-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3. 분향단

- 재료: 조각목(아카시아), 금을 입힘
- 크기: 가로 46cm, 세로 46cm, 높이 91cm,
- 모양: 상단 네 모서리에 뿔을 세움, 양 측면에 금 고리를 달고 채를 끼워 운반
- 대제사장은 아침과 저녁마다 등잔대의 등불을 살피기 위해 성소로 나아올 때 분향단에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출 30:7-8)
- 향의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케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레 16:13)
- 구름, 연기, 향은 같은 역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자신을 숨기시는 수단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출 19:18)

-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 33:20)

IV. 성막 외관

1. 성막 덮개

- 회막: 전체 성막 관련 기구 중에 외형인 텐트만 구별하여 부를 때 사용하는 명칭
- 휘장: 천장 역할을 하는 덮개, 우리 성경에는 칸막이, 가리개 역할을 하는 천을 모두 “휘장”으로 번역하여 정확한 의미 전달 안 됨

1-1. 1차 덮개

-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베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 놓은 열 폭의 휘장(덮개)을 만들지니”(출 26:1),
- 덮개 재료와 색깔: “가늘게 꼰 베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 4가지 색 실
- 무늬: “그룹을 정교하게 수 놓은” → 천사 무늬,
- 크기: 한 폭의 길이: 12.6m, 너비: 1.8m x 10폭
- 제작 방법: 10폭의 휘장을 5개씩 묶어 휘장 2개를 만들고 그 두 개를 고리로 서로 연결(출 26:4-6)

1-2. 2차 덮개

-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덮개)을 염소 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지며”(출 26:7)
- 덮개 재료: 염소 털, 당시 유목민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재료, 염색X
- 크기: 한 폭의 길이: 13.5m, 너비: 1.8m x 11폭
- 제작 방법: 1차 덮개와 유사, 남은 덮개 2규빗을 성막 남북쪽으로 1규빗씩 늘어뜨리라 명함

1-3. 3차, 4차 덮개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출 26:14)

- 3차 덮개: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
- 4차 덮개: 해달 가죽(해달 가죽(KJV), 염소 가죽(ESV), 돌고래 가죽(NASB)...)
 - 크기는 2차 덮개와 같거나 더 크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

1-4. 덮개의 의미

- 해달 가죽은 방수 효과, 안쪽 덮개는 보온, 차양 역할 했을 것
- 1차 덮개는 염색실을 사용하여 값비싸고 화려한 무늬를 자랑했는데 다른 덮개에 덮인다면 무슨 소용일까? 청색, 자색, 홍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 성소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을 때 천사 무늬 보였고, 천상의 이미지 구현,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고 그 주위에 그룹들이 날고 있는 천상을 모방
-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집무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심
- 예수님은 성막(성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만나러 오심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

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를 원한다.

2. 널판(삿대)

-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측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출 26:15-17)
- 널판 하나 크기: 높이 10규빗(4.5m), 너비 1.5규빗(68cm)
- 널판 밑부분에 두 측을 만들어 바닥의 은받침에 결합
- 성막의 남북쪽: 30규빗(13.5m), 서쪽: 9규빗(4m), 동쪽: 출입문이라 널판 없음
- 널판의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 “가로대”(crossbar)를 둘렀다. 5개의 띠로 벽체에 고정

3. 성막 내부 휘장

- 고대 사회에서는 문 제작이 어려우므로 공간을 나누는 벽으로 휘장(커튼)을 사용
- 2개 휘장: 성막 출입구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 두 휘장 모두 재료는 성막의 1차 덮개와 똑같다.

구 분	지성소 앞 휘장	성소 출입구 휘장
기둥개수	4개	5개
받침 재질	4개 은받침	5개 놋받침
그룹 무늬	있음	없음

- 지성소 휘장에 그룹 무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실과 에덴 동산을 상징(아담이 쫓겨난 이후 에덴 동산 동쪽 입구는 그룹이 지켰음)
- 지성소 앞 휘장은 사람의 출입 금지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휘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향연으로 자세히 내부를 보지 못함
-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 출입 금지의 해지, 성전이 무의미해 짐, 예수님이 지성소 앞 휘장처럼 찢겨지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심

<복습 게임>

1. 진설병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
2. 유대인들은 등잔대 불빛을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이해했다.
3. 성소에 쓰인 향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4. 널판의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 한 장치는? 가로대(띠) 설치

V. 뜰

- 출애굽기 25장: 성막에 들어갈 기구
- 출애굽기 26장: 성막 텐트 프레임 제작 설치
- 출애굽기 27장: 성막의 뜰
- 흐름: 지성소 → 성소 → 뜰 / 금 → 은 → 놋

1. 번제단 (출 27:1-8)

-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희생 제사는 불로 태우는 제사, 번제
- 번제단 불의 기원: 아론이 하나님께 처음 제사 드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사름
-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레 9:24)
- 이후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사용했으며 향을 피우는데도 반드시 이 번제단의 불만 사용해야 했다.
-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또 다른 불로 죽음 당함

1-1. 번제단의 재료 및 크기

- 재료: 조각목(아카시아 나무)에 녹을 입혔다(출 27:1).
- 크기: 가로 5규빗(2.25m), 세로 5규빗(2.25m), 높이 3규빗(1.35m) → 솔로몬 성전에서는 4배나 더 크게 만들어졌다.
- 특징: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다. 제단 안에 석쇠 역할을 하는 녹그물을 설치했다(녹그물에 고리채 설치).
- 부속 도구: 재를 담는 통, 재를 긁어낼 때 사용하는 부삽, 불 옮기는 그릇, 피나 기름 담는 대야, 제물 운반에 사용하는 고기 갈고리

1-2. 번제의 의미

- 번제는 낭비 아닌가? 이방 종교에서는 제사에 사용한 고기를 시장에 판매했는데 왜 불태워 없애버리는가?
- 제물을 불태우는 이유: 제물은 제사자의 분신과도 같다.(제물의 안수: 죄의 이동) 그 제물을 죽이고 해체하는 과정을 통해 죄의 무서움 상기, 제물을 불태울 때 올라가는 연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 그 연기는 자신을 대신한 제물의 연기이기에 제사자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
-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레 1:9)
-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평화)을 이룬다.
- 신약에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 구약 백성들은 짐승을 불태우는 제사 반복, 자기 손으로 제물 마련
- 신약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다시 제사드릴 필요가 없다.

1-3. 제단의 뿔

- 죄 사함과 권능을 상징
-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제단에 뿔을 만든 것은 신의 권능을 의미
- 제단의 뿔을 잡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한다는 의미
- 죄 지은 자가 제단의 뿔을 잡고 호소하면 하나님이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심(구원) → 도피성 제도로 이어짐
-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왕상 1:50)

- 구원의 뿔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눅 1:69),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구원.

2. 성막의 뜰 (출 27:9-19)

- 왜 울타리를 쳤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에 구별되어야 한다.
-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야 하지만 누구나 신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마음만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성소와 지성소를 꾸민 것 보라. 최대한의 정성을 보였다.)
- 크기: 100규빗(45m) X 50규빗(22.5m) 약 300평
- 기둥: 휘장을 받치는 역할, 갈고리와 가름대 설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 받침대는 놋
- 울타리 높이: 5규빗(2.25m)
- 출입문: 휘장(커튼)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제작(성막, 지성소 휘장과 같은 재질) →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상징
- 확장된 뜰: 헤롯은 기존 성전을 재건축하여 확장했는데 성전의 뜰을 3개로 확장,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 이방인의 뜰 돌담의 경고문: 이방인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이방인은 죽을 것이다.
- 유대인들은 성전을 차별과 분리의 장소로 만들었다.(선민의식 강조)
-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엡 2:14) (울타리까지 허물었다는 뜻은 아니다. 성전 내부의 막힌 담을 허셨다는 뜻)

3. 물두멍 (출 30:17-21)

- 크기, 재료: 크기에 대한 언급없고 놋으로 만들라 하심
- 용도: 제사장들이 제사드릴 때, 성막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음
-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출 30:20)

3-1. 성막 안 물의 의미

- 에덴동산에 있었던 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지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창 2:10)
- 에스겔 환상 속에 있었던 성전의 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겔 47:1-12)
- 새 하늘과 새 땅: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계 22:1-2)
- 에덴동산에서 강이 발원 = 에스겔 성전 문지방의 물 = 어린양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
- 예수님은 생명의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 성막 뜰의 물두멍은 에덴 성소의 강을 형상화
- 에덴동산 생명나무 = 등잔대(아몬드 나무 형상화)

VI. 기타 내용들

1. 속 전 (출 30:11-16)

- 출 30장은 여러 기구, 소품 모아 놓은 장 (분향단, 물두멍)
- 그런데 11-16절까지 속전세를 내라고 명령
- 속전의 의미: 죄에서 구원 받은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돈
- 속전의 용도: 성막 유지 비용
- 속전의 비용: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출 30:13)
- 속전은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세로 바뀜(평생 1회에서 매년 1회 납부로 변질, 성전 장악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성전세, 성전세 내는 두로은화로 환전 차익, 제물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 성전 귀족 행세를 했다. 예수님이 성전 장사치들에게 분노한 이유이다.)
- 빈부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반 세겔
-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출 30:15)
- 모두가 동일하게 성전 유지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의미
- 교회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빈부 관계 없이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헌금액수 적더라도 동참)

2. 기술자 (출 31:1-11)

- 성막 제작에 대한 단편적 묘사만 했기 때문에 실제 제작에 어려움
- 하나님은 설게도 한 번 보여주시고 대책 없이 알아서 만들라 하지 않으신다.(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지 터무니 없는 일을 맡기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신다.)
- 하나님이 성막 지을 기술자를 예비: 브살렐과 오홀리압
- 메인 기술자는 브살렐, 오홀리압은 조력자
- 어떤 학자는 오홀리압의 뜻이 “아버지는 나의 천막이시다”라는 것을 들어서 브살렐은 기구 만드는 일에 전문가였고, 오홀리압은 천막 제작에 전문가였다고 말한다(왕대일, 202.)
- 쓰임 받는 단계: 성령 충만(출 31:3) → 연구(출 31:4) → 제작(출 31:5)
- 성령 충만하다고 바로 제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연구를 했다.
- 아무리 성령 충만한 목사라도 성경 연구 없이 설교하면 망한다. (학생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성적 오른다.)
-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진행하실 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원래부터 그런 방면에 기술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은 이미 성경지식, 헬라 문화와 철학, 외국어 실력 준비)

3. 안식일

- 성막 기술자를 세운 다음에 왜 안식일 명령?
-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출 31:13)
- 성막 건축은 천지 창조 과정의 모방

성막 7가지 주제			천지창조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	1	
성소	진설병, 상, 등잔대	2	
성막	덮개, 널판, 휘장	3	

뜰	번제단, 울타리	4	
제사장	옷, 위임식	5	
기타	분향단, 물두멍, 기술자	6	사람
안식일	안식일	7	안식일

- 천지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 성막의 마지막도 안식
- 천지창조 후 7일째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와 누림(신랑이 신부와 함께 할 신혼집을 다 짓고 입주한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차 한잔하면서 즐기는 것 생각해 보라.)
- 성막 완성 이후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
- 주일을 안식일로 삼은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주일에 교회 일로 혹사당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도 잘못, 하나님과 즐기라)
- 하나님이 엄하게 규정하신 이유는 안식일에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의 노예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

<복습 게임>

- 죄에서 구원 받은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돈은? 속전
- 속전은 얼마며 몇 번이나 납부해야 하는가? 반세겔, 한 번만 납부
- 성막 뜰의 물두멍은 에덴동산의 강을 형상화 했다면 등잔대는 에덴동산의 무엇을 형상화 한 것인가? 생명나무
-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또 다른 불로 죽었다.
- 성막의 마지막에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안식일

VII. 제사장

1. 제사장의 자격

- 레위지파 중 아론의 후손들
-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출 28:1)
-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다. (아론이 자격이 있는가? 오늘날도 투표같은 방식이 행해지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1-2. 대제사장과 제사장 의복 비교

- 제사장: 속옷, 속바지, 머리에 쓰는 관, 허리띠
- 대제사장: 제사장 의복 + 에봇, 판결 흉패, 겹옷, 순금패

2. 에봇 (출 28:1-14)

- 겹옷 위에 입는 앞치마 같은 것
- 에봇의 재료: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베실

- “그들이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출 28:6)
- 금은 천상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표현, 청색, 자색, 홍색은 하늘을 표현한 것, 그러므로 에봇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와 성막 휘장 재료가 동일하다는 것은 성막과 제사장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 당시 의복 재료로는 최상급,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라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구별하셨다. (마음(정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다. 제사장이 아무 옷 걸쳐서는 안 되었다. 헌금할 때 ‘그냥 돈만 내면 되지’하고 온라인 입금만 할 게 아니라 헌금확인증을 쓰고 헌금함에 넣어서 하나님께 헌상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2-1. 에봇: 어깨받이

- 두 어깨에 열두 지파를 새긴 보석을 물린 장신구
- 재료: 금(금테, 금사슬), 호마노(정확치 않음, 70인역:에메랄드, KJV:onyx, 요세푸스:홍옥수)
- 2개의 보석에 각각 6지파씩 이름이 새겨짐 (백성들이 보석처럼 귀하다)
- 의미: 어깨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을 보시고 제사장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아 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뜻
-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셨다.

3. 판결 흉패 (출 28:15-29)

- 가슴 앞에 달린 직물로 만든 장식품(흉패는 딱딱한 물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가슴 주머니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
- 왜 판결 흉패인가? 가슴 주머니에 보관된 우림과 둠밈 때문 (우림과 둠밈은 재판 도구)
- 크기: 가로 세로 한뼘씩 약 20cm 정사각형 (지성소와 똑같은 재료, 정사각형 모양 → 지성소의 축소판으로 해석)
- 형태: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며, 주머니 앞에다가 한 줄에 3개씩 4줄로 12개 보석 부착, 흉패 네 귀퉁이에 금고리를 달아서 위 아래로 연결
- 특징: 12 보석에다가 12 지파 이름을 새겼다.
-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출 28:21)
- 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의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보석에 새겨진 12지파도 함께 들어간다)
- 판결 흉패의 12보석이 새 예루살렘 성에도 사용되고 있다. 구약의 12보석에는 12지파 이름을 새겼지만, 요한계시록의 12보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졌다.
-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계 21:14,19)”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백성의 일원이 된다.)

3-1. 우림과 둠밈 (출 28:30)

-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

이게 하라”(출 28:30)

-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둔 두 개의 물체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
- 재료나 제작 방법,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추측만 할 뿐이다.
- 사용된 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삼상 14:41) →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다른 번역을 보면 “만일 저나 제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를 주시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면 둠뭉을 주십시오”(ESV, NIV, NOV)
- 지성소와 같은 판결 흉패 안에서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판결로 여겼다.
- 성막과 성전이 있을 때 우림과 둠뭉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나 솔로몬 성전 사라진 이후 사라짐 → 제비뽑기 통해 하나님의 뜻 구했다.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행 1:26)
- 제비뽑기도 성령 강림 이후 사라짐,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우림과 둠뭉으로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나님 뜻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성령인도를 받는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 우림과 둠뭉은 YES OR NO,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 (묻지 않는 것조차 준비하시는 성령님)

4. 속옷 (출 28:39)

- 우리가 입는 속옷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기본 예복
- 제사장: 속옷, 대제사장: 반포 속옷(‘얼룩 반’자를 써서 무늬가 있는 속옷, 가톨릭에서는 자주 속옷, 자수를 놓은 고급 예복)

5. 관 (출 28:40)

- 모자나 왕관 같은 것이 아니라 터번

6. 속바지 (출 28:42)

- 속바지는 오늘날 속옷과 같은 기능
- “또 그들을 위하여 베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출 28:42)
- 속바지 입고 속옷(기본 예복) 입음

7. 겹옷 (출 28:31-35)

- 속옷(기본 예복) 위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
- 색깔은 청색이며 통으로 제작, 소매가 없음
- 겹옷의 맨 밑단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달고, 금방울도 달았음
- 성막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기 위해 나무, 열매, 꽃을 형상화 한 디자인, 석류는 생명나무를 형상화 한 것으로 보인다. 솔로몬 성전에서도 기둥 상부에 석류가 달린 모양, 석류는 풍요로움을 상징,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 상징
- 방울을 단 이유: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출 28:35)
- “죽지 아니하리라” 해석 : ① 방울 소리 없이 들어오면 죽을 것이다(노크 역할). ② 방울 소

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끈을 묶고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음
- 방울은 함부로 하나님께 나오다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방울을 달지 않고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 겹옷이 청색인 것은 하늘의 색, 즉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낸다. 우리는 하늘의 옷을 입지 않았지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쭈뼛대지 말고 담대하 하나님께 나아가라!)
-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을 곧 그의 육체니라”(히 10:19-20)

8. 순금패 (출 28:36-38)

-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출 28:36-37)
- 터번의 이마 부위에 달아 놓은 금으로 만든 작은 패
- 히브리어 ‘찌쁘’(패)의 뜻은 꽃이다. 제사장의 머리에 꽃을 만들라는 것은 꽃 모양의 패를 만들라는 뜻
- 석류(겹옷)와 꽃(순금패), 나무(등잔대)를 상징한 것은 성막이 에덴동산을 재현한 것이기 때문
- ‘여호와께 성결’의 의미: 직역하면 ‘여호와를 향해 구별됨’,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구별된 존재
-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소유라는 것을 선포
-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세굴라)가 되 겠고”(출 19:5)
- 세굴라: 귀중한 소유물, 보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셨다.
-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겼다: 이마에 인을 맞는 것처럼 순금패를 이마에 붙였다. 불에 달군 인을 이마에 찍는 절차 대신에 인을 찍듯이 새겨진 순금패를 이마에 달도록 하심
- 고대 사람들은 자기 소유 가축이나 사람에다가 인을 찍었다.
- ‘여호와께 성결’을 이마에 새김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소유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심
-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계 7:4)
-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안전하다.
-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
-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존재라면 구별된 언행으로 살아야 한다.